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9 권 15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115)	봉헌 (212)	성체 (154)	파견 (119)
---------	----------	----------	----------	----------

제1독서 | 신명 26,4-10

화답송 | 시편 91(90),1-2.10-11.12-13.14-15(© 15년 참조)

- ◎ 주님, 환난 가운데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아래 사는 이,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안에 머무는 이, 주님께 아뢰어라. “나의 피신처, 나의 산성, 나의 하느님, 나 그분께 의지하네.” ◎
- 너에게는 불행이 다가오지 않고, 네 천막에는 재앙이 얼씬도 못하리라. 그분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네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 주시리라. ◎
- 행여 네 발이 돌부리에 차일세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너는 독사와 살모사 위를 거닐고, 힘센 사자와 이무기를 짓밟으리라. ◎
- 그가 나를 따르기에 나 그를 구하여 주고, 내 이름 알기에 나 그를 들어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환난 가운데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며, 그를 해방시켜 영예롭게 하리라. ◎

제2독서 | 로마 10,8-13

복음환호송 | 마태 4,4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복음 | 루카 4,1-13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3/3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박 다니엘
3/10	이 마틸다	이 요한	박 다니엘
3/17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박 다니엘
3/24	유 요한	이 요한	박 다니엘

영어독서: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미사책 대금: \$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220	\$100	\$75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16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3/23	유 요한/ 유 마리아
2/23	손 아놀드/ 손 쟈마	3/30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3/2	이 글라라/ 장 글라라	4/6	홍 마르코/ 홍 아녜스
3/9	박 벨라렛다/ 정 루시아	4/13	김 요아킴/ 고 안나
3/16	이 요한/ 이 마틸다	4/20	김유스티노/김유스티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항상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 드립니다.

-백윤형 알베르토 | 한국항공소년단 사무총장-

제가 본격적으로 성가를 부르게 된 것은 1984년 연말이었습니다. 사관학교 성탄 미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방문한 합창단원들의 아름다운 성가를 듣고 느낀 것이 너무 많아 주말에 합창단 연습실을 찾아갔습니다. 합창단의 연습을 뒤에서 앉아 듣고 있었던 저는 같이 노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합창단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합창단은 제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아퀴나스 합창단입니다.

아퀴나스합창단은 성음악을 널리 알리기 위해 1977년에 故 박고영 신부님께서 창단한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50년이 넘도록 한국교회에 많은 성음악을 소개했고 지금도 주님을 찬양하는 미사 봉헌과 정기적인 연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도 시절 주말이면 주어지는 금쪽같은 외박 시간을 아퀴나스합창단과 같이했습니다.

신부님께 많은 것을 배웠고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활동하고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막상 합창단원이 되긴 했지만 처음엔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 다. 일반적인 가톨릭 성가나 생활 성가가 아닌 전통적인 교회음악을 주로 연주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퀴나스합창단은 미8군 성당에서 성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일반적인 성가도 영어로 불러야 하고 라틴어로 된 고음악도 종종 불러야 했습니다. 제게는 정말로 완전 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비스럽고 성스러운 느낌이 드는 교회음악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매년 두 번씩 진행되는 사순 음악회와 연말 정기연주회도 비록 준비하기는 힘들었지만 재미있는 과정이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성체조배는 4월 4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두번째 일요일 오후 7시 30분

임원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원회의는 3월 10일(오늘) 입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3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셋째 주 제외)

오늘 부터 매주 미사 후 코린토 후서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Homeless Feeding 3월 30일

새 양말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따뜻한 정성 부탁드립니다.

기한은 3월 17일 까지 입니다.

2018년도 세금 보고용 영수증 신청

세금 보고용 교무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재무부장님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에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기도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었습니다. 그저 제목만 들어보거나 어쩌다 한 번 들어 보았던 ‘메시아’나 ‘요한 수난곡’ 같은 음악을 전곡으로 연주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창단 50주년 기념으로 명동대성당에서 헨델의 ‘메시아’를 연주했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많은 신자들이 오셨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의 연주 시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내용의 곡들이 연주되었고 마지막 곡인 ‘아멘’이 끝났을 때 관객 모두가 일어나서 환호와 격려를 보내주실 때의 감동은 아직도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진심으로 전한 우리의 연주 로 하나 되는 광경이었습니다.

단순히 신부님께서 정해주신 곡들을 불렀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전례에 필요한 곡들을 배워가는 과정 이었고 지금도 그때의 가르침으로 제가 지휘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라틴어로 된 곡들의 내용을 배우고 전례에 맞는 기도문의 내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퀴나스합창단에서 만나 30년을 훌쩍 넘은 시간 동안 같이 성가를 부르고 있는 아내와 지금까지 함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항상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영광과 신비를 끝없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 흠승과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겸손한 종으로 봉사하며 살아갈 힘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복음묵상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루카 4-4)